

## 취미생활코-너欄 新設에 부처

「人間은 太初로부터 植物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支配하도록 創造되었다. 植物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情緒가 函養되고 盆栽를 培養함으로써 健全한 趣味生活을 圖謀하며 아울러 精神과 肉體健康에 큰 도움을 줄것입니다.」

이글은 盆栽研究家이며 韓國盆栽文化研究院 院長인 安亨在 선생께서 特히 強調하신 말씀이다.

本誌가 趣味生活코-너欄을 新設함에 있어 먼저 盆栽培養法을 攄한 理由도 安 선생께서 強調하신 “植物과 더불어”가 作用했다고 하겠다.

恒常 同一한 空間과 環境, 그리고 同一한 物件속에서 同一한 診療業務에만 從事(沒頭)하시는 齒科醫療人에게는 盆栽에 대한 關心을 갖게하는 것이 가장 適切할것 같아 安亨在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欄을 통해 盆栽培養法을 터득함으로써 院長님이 손수 가꾸신 盆栽 몇점이 診療室을 찾아오는 不安(?)에 쌓인 患者에게 安堵感과 安定感을 줄수 있을수도 있지않을까 생각된다.

(編輯者 註)



(한국분재문화연구원장 안형재선생)

現代를 살아 가는 우리들의 生活環境은 漸次 비좁아지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숲을 이루어 가고 있음으로 因하여 自然에 對한 憧憬心은 날로 增大되어 가고 人間은 태초부터 植物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支配하도록 創造되었다.

盆栽에 對한 慾求가 날로 深化될수밖에 없는 까닭일 것이다.

따라서 植物과 함께 살아 감으로써 情緒가 函養되고 盆栽를 培養함으로써 健全한 趣味生活을 圖謀할수 있으며 精神과 肉體의 健康에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리라 믿는다.

오랫동안 盆栽와 더불어 살아오면서 올바른 盆栽의 組織과 培養法을 알려야겠다는 盆栽人으로써의 責務와 特히 韓國의 盆栽를 創出해 내고 發展시켜 나아가 감으로써 民族의 肯志를 提高시키고 우리의 祖上들이 즐기던 멋과 魂이 담긴 그러한 盆栽를 가꾸어나갈수 있다면 하는 念願으로 이 일을 始作해본다.

韓國의 盆栽를 기르고 즐기게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江山과 風土를 理解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山野, 四季節이 뚜렷한 氣候等은 우리만이 享有할수있는 自然環境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與件에서 生長하는 植物을 素材로 하고 季節의 變化에 順應하면서 成長하는 盆栽들을 우리들의 品位와 氣概가 含蓄되도록 精誠들어 다듬고 表出시켜 나아가 갈때 만이 우리의 盆栽文化도 巨視的 發展을 期待할수 있을 것이다.

“韓國盆栽文化研究院”의 開設은 위와 같은 것들을 實現해 보고자 하는데 참 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電波와 活字 媒体를 통하여 그리고 數 많은 盆栽人들과의 만남에 依해서 또한 수척그루의 盆栽를 直接 기르는 作業가운데서 나의 이 所望은 결코 헛되지 않을것임을 確信해 본다.

이 글을 통해서 盆栽에 關한 基本的인 知識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于先 當付 드리고 싶은것은,

첫째 自然에 對한 사랑의 마음이다. 自然을 사랑할줄 아는 사람만이 올바른 盆栽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精誠이다. 一時的 鑑賞을 爲한 目的으로 盆栽를 한다는 것은 大端히 危險한 일이다.

셋째는 約束의 履行이다. 自然은 거짓이 없다. 自然은 眞實한 것이다. 사람의 便에서 그러한 것들을 看過하거나 重視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을 주기로 約束한 때에는 반드시 물 주기를 해야 한다.

盆栽를 하는데 있어서는 特別한 技術을 要하는 事項보다는 위와 같은 세가지 일들이 지켜질수만 있다면 누구도 成功的으로 할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 그루 한 그루의 盆栽에서 自身들의 魂이 成長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글쓴이: 韓國盆栽文化研究院

附設: 竹山盆栽院·竹山造景

代表 安亨在

안양시관양동 148-1

(0343) 43-6367

# 등(藤)나무 분재

한국분재문화연구원장  
안 형 재

등나무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원산지(原產地)로 북미(北美) 등지에까지 퍼져있는 만성낙엽관목(蔓性落葉灌木)으로써 콩과(豆科)에 속한 식물이다. 우리나라에는 전설(傳說)이 얽힌 경복 월성의 노목(老木)과 동래 범어사의 군생지(群生地)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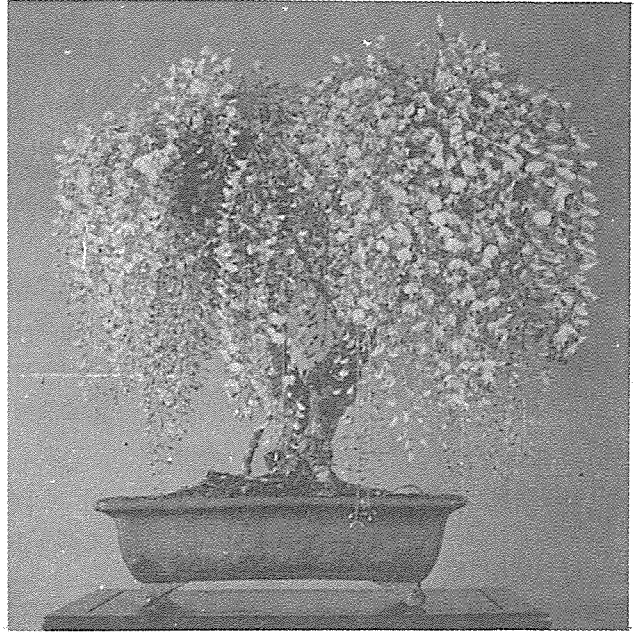
꽃은 5~6월에 흰색과 자색으로 피며, 한 송이의 길이가 30cm~100cm 정도로 늘어지며 아름답고 향기 또한 대단하다. 열매는 완두콩 모양으로 20cm가량 길며 9~10월에 결실(結實)한다.

전설에 의하면 등나무 꽃을 말려서 신흠 금침에 넣어주면 부부(夫婦)의 애정이 좋아진다고하고 또 부부사이가 벌어졌을때 등나무 잎을 삶은 물을 마시면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어쨌든 등나무 분재는 화사한 꽃, 풍성한 열매, 용틀림 하듯 자라는 줄기, 강인한 생명력 때문에 많은 애호가(愛好家)들의 각광을 받고 있으며 애배(愛培)하고 있다.

### 번식법(繁殖法)

삽목(挿木)과 접목(接木) 휘묻이 등으로 번식한다.

삽목은 3~4월경 지난해에 자란 충실한 가지를 20cm 길이로 잘라서 흙정도 땅에 묻히게 꽂고 온도와 차광(遮光), 습도에 유의



하면 발아(發芽)한다.

접목은 종자를 뿌려서 1년동안 자란 묘목(苗木)에 3월중~하순경 접수(接穗)에 눈을 2개씩 붙여서 절접(切接)한다. 접 붙힌 묘(苗)는 접 붙힌 순이 보이지 않도록 흙을 덮어 심었다가 활착하여 싹이 나오면 접수가 드러나도록 흙을 파 해쳐준다.

휘묻이는 5월경 줄기를 마디부분이 땅에 묻히도록 휘묻었다가 가을에 잘라 심는 방법이다.

### 배양토(培養土)

2~3% 정도 굵기의 입자(粒子)를 사용하되 잘 섞은 부엽토를 30%가량 섞어서 사용한다.

### 물주기(灌水)

일반적으로 등나무는 물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분재(盆栽)로써 기를 때에는 물기가 너무 많으면 마디가 길게 뻗어 나가므로 수형(樹形)을 만

들기가 좋지 않을뿐만 아니라, 꽃눈형성(花芽分化)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등나무는 매화 나무와 같이 보통의 나무보다 약간 적게 주는편이 좋다.

### 비료(肥料) 주기

알거름(置肥)을 연 2회 3~9월에 시비하고, 물 거름을 3월~10월 사이에 10일 간격으로 주되 장마철에는 추지 않도록 한다. 지효성(遲效性) 비료인 골분(骨粉)을 분갈이 할때에 반드시 주도록 한다.

### 알맞는 수형 및 전정(剪定)

수형은 줄기가 가급적 용틀임으로 자라도록 어린 묘목때부터 길러주는 것이 좋다. 전정요령은 햇별이 가지마다 골고루 쪼도록 접친 가지를 잘라준다.

(다음호 : 梅盆 꽃피우기)

334 페이지에 계속→